

기고

“코인사기, 리빙방 주의보”

변인석 강진경찰서 경무계순경



최근에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사기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리빙방을 통한 코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기투고에서는 코인사기와 리빙방에 대한 주의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사기는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를 약속하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욕심과 불확실한 투자 기회에 대한 욕구를 이용하여 사기를 저지르는데, 흔히 투자금을 받아 약속된 수익을 보장하며 신뢰를 쌓은 뒤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너무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의 심해야 합니다.

리빙방은 인터넷 상에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천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모든 리빙방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리빙방은 특정 코인을 조작하여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등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빙방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신중을 기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인사기와 리빙방의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조언입니다:

1. 자기 판단: 투자 결정은 개인의 자기 판단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인 판단을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2. 신뢰할 수 있는 소스: 코인 관련 정보를 얻을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소스를 참고해야 합니다. 신문, 공식 웹사이트, 업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심스러운 투자: 초고수익이 약속되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인 예상 수익과 위험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합니다.
 4. 교육과 정보 습득: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최신 정보를 꾸준히 파악하여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신고와 공유: 코인사기나 의심스러운 리빙방을 발견했을 때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코인사기와 리빙방의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신중한 투자와 정보 습득을 통해 안전한 암호화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의 자산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귀중한 돈을 쉽게 날리는 사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스와 자기 판단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럼

5월의 여왕 장미꽃 향연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곡성군은 제13회 장미축제를 5월 20일부터 29일 까지하여 장미꽃 향연을 베풀고 있다. 봄이 절정을 이루는 5월의 시기에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공원에서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일제히 꽃 문을 여는 무려 1,004종이나 되는 장미꽃과 수천만 송이의 장미 향기가 가득한 기차마을 장미공원에서 향기, 사랑 꿈을 주제로 매년 5월 하순 ~ 6월 초순경 개최하는 장미축제가 그동안 플레타19 감염 때문에 축소되었으나 올해는 장미꽃 향연을 베푸는 곡성을 자랑하고 있다.

장미는 대부분 5-6월에 피지만, 사계 화 장미도 5월에 피는 꽃이 가장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장미 축제를 5월에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월별로 피는 꽃에 따라 3월에는 매화꽃 축제가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마을에서, 4월에는 벚꽃 축제가 진해와 영암군에서 있었으며, 5월에는 장미꽃 축제가 여러 곳에서 있었는데 올해는 곡성군에서 5월 20일부터 장미꽃 축제를 하고 있다.

곡성군은 전라남도에서 산이 많고 가장 작은 군인데 특산물도 많으며 군민이 순박하고 근면하며 해마다 군민이 마음을 합하여 효심으로 뭉치는 심청 축제를 해마다 10월 중에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제22회 심청 축제를 10월 초순에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일원에서 거행한다. 섬진강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이용해 기차마을 관광열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차 마을 공원에 장미나무를 심고 가꾸어 제13회 세계 장미축제를 시행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이용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장미(薔薇 Rose)는 장미 속의 관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높이는 2-3m고, 덩굴장미와 땅 장미가 있으며 잎은 어긋나고 깃 모양이다. 장미꽃은 5-6월에 담홍색, 담자색, 흰색 따위의 꽃이 피는데 연중 피는 사계 화 장미도 있으며 개량 품종이 많은 관상 꽃나무다.

장미꽃은 영국의 국화며 장미 나무에는 가시가 있으나 꽃의 향기와 아름

다운 다양한 색상은 꽃 중의 여왕의 꽃으로 자랑한다. 장미는 그 색상에 따라 꽃말이 다르며 빨강 장미는 욕망 열정, 기쁨 그리고 아름다움을 뜻하고, 하얀 장미는 존경, 빛의 꽃, 순정, 순진, 매력을 뜻하며, 분홍 장미는 맹세, 단순, 행복한 사랑을 뜻하고, 주황색 장미 수줍음, 첫사랑의 고백을 뜻한다. 노란 장미는 질투, 완벽한 성취, 사랑의 감소, 우정을 뜻하고, 초록 장미는 천상에만 존재하는 고귀한 사랑을 뜻한다.

학교 공원과 사업으로 성공한 조선대학교는 공한지를 이용해 장미원을 조성했으며 조선대학교 장미원은 연중무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장미 품종과 수량은 약 226종과 18,000주가 장미원에 심겨 있어 장미 향기를 맡으며 다양한 장미꽃 감상을 하는데 야간에도 조명이 설치되어 관람이 가능하다.

장미 나무는 삼목과 접붙이기로 묘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찔레꽃 나무에 장미 접붙이기로 묘목을 만듦으로 접목 기술을 익혀 노지에 자생하는 찔레 나무에 접붙이면 장미나무가 되고 눈접으로도 장미 나무를 만들 수 있다. 품종개량으로 사철 피는 사계 화 장미는 화분에 심어 가꾸면 집안의 실외 꽃밭 환경 조성도 되며, 장미는 다년생 꽃나무이기 때문에 다년간 가꾸고 감상하며 즐길 수 있는 꽃나무다.

필자는 장미꽃을 사랑하고 꽃의 향기를 맡으며 장미와 가까이 살고 싶어 집안의 담장에는 사계 화 덩굴장미를 심어 장식했고, 빨강 분홍 노랑 흰색의 사계 화 땅 장미를 화분에 심어 비치해 실외 주변 환경을 새롭게 바꿨다.

장미의 계절인 5월이 저물어 가고 있지만, 5월에 개화하여 절정을 이룬 장미가 지고 사계 화 장미가 자리를 메꾸면 연중 장미꽃 향연이 전개될 것이다. 우리는 집안에서 사계 화 장미를 가꾸면서 장미꽃과 가까이 살았으면 한다.

기고

‘폭염’은 무서운 자연재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변규석 장흥소방서 대응구조과 소방교



가 있다. 온열 질환 예방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그늘·휴식’ 3대 수칙 지키기이다. 공장이나 논·밭, 비닐하우스 등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물을 충분히 챙기고 될 수 있는 대로 2인 1조로 움직인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휴식하도록 한다.

지구 이상기온 및 엘니뇨가 겹치면서 올여름 폭염과 폭우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자연재난을 꼽으려면 무엇이 먼저 생각날까?

아마도 태풍과 집중호우, 지진 등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폭염이 사망자 1위의 가장 무서운 ‘자연재난’이다.

질병관리청 ‘온열 환자 감시 체계’에 의하여 파악된 작년 온열질환자는 1천 564명으로 직전년(1천 376명) 대비 13.7% 증가했다고 한다. 남성이 80.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10만 명당 6.4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올해도 때 이른 더위로 인해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5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한다.

안전한 여름을 나기 위해선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을 알아둘 필요

운동과 과다한 땀 배출 등으로 인한 열경련, 열사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소금물 섭취 등 대처요령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주변에 열사병·일사병 증상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먼저 119에 신고하고 그늘진 곳으로 옮긴 후 옷을 느슨하게 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준다. 의식이 있다면 물이나 스포츠음료를 제공하고 의식이 없다면 그늘진 곳에서 119를 기다려야 한다. 폭염이 심각한 재난임을 인식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현명한 대처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길 바란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용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영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